



메이컵인 서울 : 미션 완수!



제 3 회 메이컵인 서울이 지난 주 서울 여의도의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예상했던 것 보다 진행은 더욱 순조로 왔다. 2,416 명이 페어를 방문하였고, 이틀간의 컨퍼런스에는 1,230 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 이틀간에 메이컵 분야의 모든 산업을 총체적으로 모은다는 수준 높은 야망을 달성한 듯하다. 특히 지구 네 대륙으로부터 온 참가업체와 방문객은 메이컵인 서울이 범 국제적인 행사임을 증명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업체는 20%가 증가하였고 행사 끝에 모두 입을 모아 수준 높은 방문객과 비즈니스 달성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뿐 아니라 근처의 아시아 국가에서 대거 방문한 방문객들 중 특히 중국과 일본 메이커들의 확실한 증가를 보였다. 처음으로 호텔 콘래드의 두개 층을 사용한 제 3 회 메이컵인 서울은 그 수준 높고 탁월한 컨퍼런스로 또한 강한 인상을 심었다. 1,230 명 이상이 이틀간 메이컵 분야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좌담회를 듣기 위해 컨퍼런스 홀에 연이어 모여들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브라질로부터 컨퍼런스를 위해 내한한 각 분야의 인물들이 뷰티 분야의 역동성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많은 질문과 강렬한 토론이 오간 진정한 국제 컨퍼런스였다.

"세울리스타"의 중심, 메이크업인 서울

이번 제 3 회 메이크업인 서울의 "하이라이트"가 된 요소들 중,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헤라가 새로 런칭한 "세울리스타"는 진정 한국의 뷰티에 트렌드를 일으키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헤라 이은임 상무의



프레젠테이션에 짝 찬 컨퍼런스 홀은 열기로 가득했다.

"세울리스타"란 어떤 의미인가?

파리지엔이나 뉴요커처럼 세울리스타는 자기 확신과 품위, 열정 그리고 끝없는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매혹하는 여성이다.

브랜드 헤라는 메이크업인 서울의

파트너로 3년

계속해 독자적인

라운지를 열어 많은

전문가들을 끌었다.

또한 올해도 역시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가 주관하는 메이크업 콩쿠르에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 명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모델들과 함께 화려한 연출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페어 주최측은 행사 후 수료증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1년 후 2017년 4월 새로운 "슈퍼 (Super)" 메이크업 그리고 더욱 새로운 "스킨케어 (Skincare)" 인 서울에서 다시 만나길.....!